

# 韓日文學을 통해서 본 “늙음”\*

橫 山 景 子\*\*

## 〈차 례〉

- |                  |                 |
|------------------|-----------------|
| I. “늙음”이라는 것은    | IV. “늙음”의 사랑과 性 |
| II. 늙음의 自覺(嘆老)   | V. 社會와 老人       |
| III. 自覺이 없는 “늙음” | VI. 結 論         |

## I. 늙음이라는 것은?

“늙음”이라는 말을 실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현상이고 나이를 먹은 인간의 육체는 그것 자체의 독특한 樣態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학적인 결과도 나타내며 노인의 어떤 사람의 행동은 老齡을 특징지우는 점에서, 실존 규모를 가지고 있다.

즉 “늙음”이라는 것은 心身의학의 영역에 속하면서, 개인의 心情생활은 그의 실존적 상황의 조명에 의하지 않고는 해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실존적 상황도 그 육체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로도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시간에 대한 관계, 즉 늙는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어느 정도 쇠퇴하였는가에 의해 알 수 있고, 그 위에 사회는 노인의 특질, 이를테면 무능한가, 경험이 풍부한가에 의하여 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늙음은 순환성의 제한없는 운동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비 연구보조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 2 人文研究

그러므로 늙음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들의 境涯, 諸相에 조명을 맞추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에서의 노인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늙음이 생물학적 운명이라 해도 이 운명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역으로 어떤 사회에 있어서 늙음이 존재하는 意味, 또는 無意味는 그 사회 전체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늙음을 통해서야말로 이전의 그 인간의 인생 전체의 의미, 또는 무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시에 노인의 境涯가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을 꼬집어내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댓가에 의해 困苦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인간의 늙음의 상황은 크게 두가지 면, 외부적인 면과 그 내부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외부적인 것은 타인의 눈에 보이는 생물학, 민족학, 역사, 현대의 사회학 등의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인 내부적인 것은 나이를 먹은 인간이 자기의 신체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얼마나 내면화하는가 (내적 경험으로써 자각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늙음이 서로 타에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한사람의 인간이 늙음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그 사회에 의하여 決定된다. 퇴직한 늙은 노동자와 자본가인 노인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개인적, 생물학적인 “늙음”은 같지만, 건강상태, 가족,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그 늙음의 현상은 개개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늙음은 일반성을 두고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를 대상으로 하여 조명되고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결을 더 나아가 늙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늙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닌 어떤 추이(推移)의 도달점이며 그 계속이다. 이 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늙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할 때, “늙음”이라는 관념은 “변화”라는 관념에 결부되어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볼 때, 태어나서

성장하는 유아의 삶도 끊임없는 변화라는 사실에서 인간의 일생은 완만한 죽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같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진실을 무시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듯하다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불안정한 통일조직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활동”과 동의어이다. 생명의 법칙은 변화하는 것이고, 노화(老化)의 현상은 그 변화의 어떤 종류의 형태, 즉 可逆할 수 없고 불리한 변화이며 조락(凋落)을 의미한다.

미국의 노년학자 란신그는 이같은 노화의 현상을 정의하고 노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숙기 후에 명확하게 되고, 불가피적으로 죽음에 도달한다. 이 불리한 변화의 점진적 추이를 노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변화라는 것은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목표를 두고 진보, 퇴보를 생각할 경우, 또는 살아간다는 사실 속에서 연령의 순서를 생각할 경우, 불리한 변화를 느낀다. 가장 단순한 것으로 인간의 육체를 생각하면 쉽다.

유기체는 存續하기 위해 자기의 균형이 위태롭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자기를 방위한다. 이 과정에서 有利, 不利 등은 명백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들면 인간의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20세 정도까지는 존속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며, 성장이 절정에 달한다. 그러므로 유익하다. 그러나 불리한 변화는 의외로 일찍 일어나고 20세를 넘기면 특히 30세 이후가 되면 여러 기관의 退行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노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기관의 여러가지의 減損과 변질과 쇠퇴는 습관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동과 실제적, 지적인 지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여러 가지의 결함을 산발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동안은 노화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함이 증대해지고 不治가 될 때, 육체는 취약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때 육체는 조락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과학자, 철학자, 작가들은 인간의 전성기를 인생의 중간 정도에 둔다. 즉, 노년기를 인생의 가장 축복받은 시기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늙음은 경험과 지혜와 편안함을 가져오고 인생에는 조락이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드문 몇몇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보, 퇴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노년의 목적은 선천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에 의하여 여러 가치가 창조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인간의 조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백하게 된다. 즉, 늙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실 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늙음과 관계있는 한일양국의 문학작품에 보여지는 늙음에 조명을 비추고, 동시에 현실을 주시하고자 한다.

## II. 늙음의 自覺(嘆老)

### 1.

시모느 드 보바르의 「늙음」의 첫머리에 부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부처가 아직 싯다르타태자로 훌륭한 궁전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무렵, 근처를 산책하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 처음으로 외출했을 때, 그가 한사람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가 빠지고, 주름투성이로 머리는 벗겨지고,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뭔가 증얼증얼 증얼거리고,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놀라자 마부는 그에게 “노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라고 태자는 말했다. 약하고 무지한 존재인 우리 자신이 청년 특유의 오만에 취해 늙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놀이나 즐거움 같은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나는 미래의 늙음의 住居이니까.

부처는 노인을 통하여 그 자신의 운명을 보았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그는 보통의 인간과는 달랐다. 보통의 인간은 자신이 늙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늙어서 비로소 탄식하기 시작한다. 부처와 같이 “내가 미래의 늙음의 住居이다.” 라고 느끼는 청년이나 소년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의 사회에서는 죽은 자라는 어휘, 노령을 연상시키는 화제나 주제는 사회의 치부이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不謹慎한 것이었다. 그것에 비해 동양에서의 노인은 존경의 대상으로서 다행하게도 서양사회처럼 불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사실을 탄식하는 심정은 인간의 슬픔으로써 詩歌와 소설 속에 많이 묘사되어 왔다. 현재까지 적어도 사상적, 관념적으로는 일본, 한국의 사회에서의 경로사상은 살아있고, 일반적으로 노인을 숭고화한 모습으로써 백발의 후광이 비치는 모습은 경험 풍부하고 존경받는 賢者의 이미지를 가졌다고 배워왔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사상이 어떤가는 별문제로 하고,

그러나 예기하지 않는 사이에 닥쳐오는 늙음을 깨달았을 때, 그 탄식을 사람들은 노래로 표현하고, 조용히 그 숙명을 받아들였다. 그러한 늙음의 탄식을 한국의 시조문학에서 볼 수가 있다.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늙음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숙명이다. 동시에 인간의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인한 현상이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육체의 臟器가 위축한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은 죽음에 직결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늙음을 싫어하고, 백발은 늙음의 표상이므로 이것을 슬프게 생각한다. 동서고금의 시인 중 백발을 탄식하여 읊은 시는 중국의 卓文君의 白頭吟과 劉廷芝의 代悲白頭翁, 李白의 秋浦詩 등도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歌辭에도 작자는 미상이지만 노인가, 백발가 등이 있고, 고려말기에 성립된 시조는 이제까지의 고려가요와 달리 작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이조 중기 이후 청구영언 과 해동가요 이외의 시조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작자에 우탁(禹倬, 1263-1343)과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이 있고, 시조에는 우탁의 嘆老歌를 비롯하여 이것을 주제로 한 시조는 평시조 2759수 중에 75수가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 백발을 탄식한 시조는 60수로 기록되어 있다.(서원섭: 「時調文學研究」)

다음은 우탁의 백발을 한탄하는 시조 두수이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 6 人文研究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3177)

바른 손에는 가시가 돋힌 나무가지를 그리고 왼 손에는 굵은 막대를  
쥐어잡고서 늙어가는 것을 가시막대로 막으며 한편 나날이 불어나는 센  
머리털을 굵은 막대로 쳐물리치고 늙지 않으려 애써 보았건만, 백발이 막는  
겉새를 알아챈 듯 어쩔 사이없이 지름길로 달려들어 여전히 몸은 늙어만  
가는구나!

춘산에 눈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없다  
적은 덧 빌어다가 불리과져 머리위에  
귀밀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산에 쌓였던 겨울 눈을 말끔히 녹여내고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게 한  
봄바람이 한동안 불더니만 어느새 온데간데 없네. 그 봄바람을 잠시만 빌어다가  
이 늙은 머리 위로 불게 해 보고 싶구나! 그리하여 벌써 여러해가 된 귀밀의  
서릿발 같은 회여진 머리카락을 눈 녹이듯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만.

두수 모두 바삭바삭 다가오는 늙음, 老境에 들어선 심정을 담담하게 노래한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면서 음울한 부분이 없이 쾌활하고, 자신의  
늙음이면서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늙음을 바라보는 여유있는 노래방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인적인 면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된다. 피할 수  
없는 늙음에 여유있는 태도에서 보이는 유머러스하게조차 느껴지는 백발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조작자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탁의 인품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탁은 이조년과 함께 고려말기의 대표적  
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두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우탁이 6살 정도 연장이었지만 죽은 것은 같은 해이다. 그들은 함께  
왕에게 諫言했으나 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오로지  
독서와 후진양성에 생애를 바쳤다.

우탁은 조선에 있어서 주자학의 시조로도 불리워지는 사람이며 역학에도

조예가 깊어 雅號를 易東 이라고도 했다.

두수 모두 人爲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늙음의 빠름을 탄식하고 있지만, 막대와 가시로 늙는 길을 막는다 라든가, 눈을 녹인 春風을 빌려서 머리의 백발을 없애보고 싶다 등에는 한국인적인 위트와 여유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볼 수 있다. 늙음은 한탄스러운 것이지만 인생을 완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동양에서 백발은 그의 내면을 크게 동요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의 훈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辛啓榮의 백발을 탄식한 대표적인 시조를 본다.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으니 옛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쩍긴 양자 보니 다 죽어만 하여라(1381)

身老心不老란 말과 같이, 비록 늙었지만 자신은 늙은 줄도 모르고 항상 老益壯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거울을 보니 백발이고 곱던 얼굴은 거칠어져 있어 자신도 모르게 비감해지고 늙음을 알게 한 거울을 마냥 원망스럽게만 여긴다라는 이 노래에는 몸은 늙어도 정신적으로는 언제까지라도 청년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만, 직면하는 늙은 모습을 탄식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외에 영조때 晝史인 金振泰의 시조를 볼 수 있다

세월이 여류하니 백발이 절로 난다  
뽑고 또 뽑아서 젊고자 하는 뜻은  
복당에 친제하시니 그를 두려 함이라(1636)

이는 세월이 흐르는 것은 물과 같이 빠르고 머리에는 백발이 절로 난다. 뽑아버리고 또 뽑아버리면서 젊어 보이려고 하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므로 그 어머니가 자식이 늙어간다고 서러워할까 염려되기에 그렇게 할 따름이라고 부모를 위한 효심에서 다시 소년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흐르는 시간의 빠름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닥쳐온

늙음의 쓸쓸함을 읊은 것이다.

2.

嘆老의 심정이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된 탄식이라는 것은 일본문학의 和歌에서도 알 수 있다.

시조보다도 연대는 조금 오래된 일본의 平安시대에 성립한 古今和歌集(雜歌上)에 늙음의 노래가 16수 지어져 있다.

老いらくの來むと知りせば門さしてなしと答えて逢はざらましを(895)

老年이 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문을 닫고는 없다고 대답하고 만나지 않았을 텐데, 작자는 미상이지만 옛날 어느 세 사람의 노인이 노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년을 擬人化 하여 노래한 것에 재미를 느끼게 한다. 동시에 우탁의 시조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늙는 길을 막고 또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백발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라는 유머러스한 늙음의 노래와 상통하는 여유있는 공통성을 느낀다.

老境에 들어선 인간은 씨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늙음을 공통적으로 자각하고 그것에 대처해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또한 같은 古今集 안에 在原棟梁(아리하라노무내야나)의 늙음의 노래가 있다.

しら雪の八重ふりしけるかへる山かへるかへるも老いにけるかな(902)

백설이 몇겹이고 내려서 가득 덮혀 있는 곳은 越路(코시지)에서 이름높은 카에루산이다. 몇번이나 뿔수가 지나, 나이가 들어버린 것은 나의 肉身이다. 여기에서 백설은 백발을 암시하고 또 카에루산이 눈으로 순백이 된 것을 산이 늙었다고 여김과 동시에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여 읊은 노래이다.

鏡山いざたちよりて見てゆかむ年經ぬる身は老いやしぬると

자 鏡山(거울이라는 산이름)에 잠깐 들러 나의 모습을 비치고 가자. 세월이 지난 우리 몸이 늙어 있지 않을까 어떨까.

古今和歌集 안에는 늬음의 노래이면서 염세적인 無常觀은 느껴지지 않고, 담담하고 냉정하게 자기의 늬음을 읊어내는 태도의 노래가 다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노년이라는 것이 찾아 와서……」라는 노래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홀러가는 세월을 만류할 수 있를 리도 없는데, 나는 그것을 기쁘다라든가, 괴롭다라 든가 제멋대로 말하고 지나가 버렸다.」(897)라는 의미의 노래와 「세월도 거꾸로 홀러가게 하고싶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나의 年齡이 세월과 함께 나의 자리에 돌아와 즐까하고 생각했지만.」(896) 등 감상적인 嘆老의 노래라기보다는 늬음을 달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平安 초기(9세기)에는 한문학이 유행했던 시기지만, 和歌는 사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써 万葉集 이래 새로운 서정과 지적인 기교를 더하여 등장했다. 또한 和歌는 歌人이 한곳에 모여 그 우열을 경쟁하는 놀이라는 遊戯性과 함께 귀인들을 맞이했다. 특히 놀이의 유행은 다이고(醍醐) 천황이라는 비호자를 얻어 905년 초의 勅撰和歌集인 古今和歌集 으로 개화한 歌集이다. 따라서 작자에는 左大臣, 右大臣, 당대의 權門과 公卿 등 소위 상류계급이 있고, 卑官 집필자의 노래는 한 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을 추측해 볼 때 염세적인 無常觀을 동반하지 않는 늬음의 노래가 생기는 배경도 살펴볼 수 있다. 늬음은 필연적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의 숙명인 것을 깨달은 지적인 상류계급자의 신분을 반영한 것이다. 앞에 기술한 시조인 嘆老의 노래에서도, 언뜻 보면 유머러스하게 해석되는 늬음의 노래에서 작자의 사회적 계급과 지적 환경에 속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같은 歌集 속에 늬음의 불안을 절실하게 표현한 노모의 노래가 있다. 在原業平(아리하라노나리히라)의 어머니가 長岡에 살았을 때, 나리히라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갈 수 없었다. 어느 해 12월경, 어머니로부터 「급한 불일」이라며 심부름꾼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열어 보니 편지 안에 말은 없고 다음의 노래가 들어 있었다.

老いぬればさらぬ別れもありも言えはいよいよ見まくまほしき君かな.(900)

나도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언제 올 지 모르겠다. 그 탓인가 요사이 너를 더욱 만나고 싶어졌다. 라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노모의 심정을 애타게 노래로 읊고 있다. 이 노래에서는 슬픔과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영원한 이별의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표현한 노모의 늙음에의 자각을 알 수가 있다.

이 노래에 대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회답의 노래는

世の中にさらぬ別れのなくもかな千代もとなけなく人の子のため.(901)

영원한 이별이 이 세상에 없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천년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라도 라고 써보냈는데, 이것은 일본의 六歌仙시대를 대표하는 名歌이다.

어머니의 贈答歌도 답가도 거의 기교스러운 것없이 심정 그대로를 노래한 것이며, 특히 나이가 든 어머니의 아들에의 생각과 배려는 노년과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약함과 불안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古今和歌集보다도 시대가 지난 근세기의 歌人인 香川景樹(카가와 카게키)가 자신의 늙음의 감정을 불행한 달빛과 對象시켜 다소 감상적으로 유창하게 노래한 것이 있다.

身は老いぬ松も木だかく成りにけりかわらぬ物は秋の夜の月(「桂園一枝」)

자신의 몸은 언젠가 늙어버리고 소나무도 해마다 높이 자라간다. 그러나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가을하늘을 환히 비추는 달뿐이다. 라고 만물이 변하고 자신도 자연과 함께 늙어 가는 모습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달빛에 對象시키고 있는 嘆老歌이다.

10세기나 오늘날이나 인간의 늙음은 민족을 막론하고 국경을 막론하여 시간이 흐르면 인생을 쫓아가고 인간을 슬프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III. 自覺이 없는 ‘늙음’

#### 1.

우리들은 늙음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늙음의 현상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것이다. 늙음은 돌연히 미지의 正體로서 개인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된 과정도 가질 수 없는 初體驗이다.

이 장에서는 노화의 증대한 생리현상인 정신장애(精神障害)에 대해 알아보자.

정신장애는 다른 어떤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게 가장 많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는 그러한 정신장애에 대하여 한데 묶어 노인성 치매(痴呆)라는 하나의 형태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정신병에 관한 학회 등이 개최되어, 그 이후 신경병이나 노인성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다. 그러나 노화의 정상적인 현상인 정신기능 저하와 병리학적인 성격을 가진 異常의 구별은 현재도 조금은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은 명확히 병리적인 케이스가 많다. 노인은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다. 이런 일은 육체적인 장애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상태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그들의 實存者로서의 상황, 그들의 性적인 조건은 노이로제나 정신병 촉진에 좋은 조건이다.

정신과 의사는 노이로제가 性적인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근원은 환자의 幼少年期的 경험, 또는 그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란에 있다고 한다.

노인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이로제의 종류는

첫째는 망상병(妄想病)형의 성격노이로제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여러가지의 心氣症적 증상을 나타내고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이라든가 질환, 두통, 소화기 장애 등을 호소하고, 요구가 많고 가끔 병적인 질투심이 강해지고, 망상증적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죽음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불안노이로제가 있고 많은 노인이 걸리는 우울병 상태로 그 대부분이 공통하는 것은 권태감, 슬픔, 불안 등이다.

세째로는 히스테리성 노이로제가 있고 이것은 잠재적 노이로제를 원천으로 하여 이것이 노화현상에 의해 격발된 것이다. 이 경우, 내적 갈등의 기원은 유소년기에 있고, 증상은 욕망과 禁壓과의 사이의 타협을 상징적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환자는 근친자에 대해서 심정적인 폭군이 되고, 病속에 틀어박혀 돌봐주기를 바라고 심정적 협박을 하고,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고통에 괴로와하는 체한다. 때로는 억압된 불안이 육체로 轉移하여 간질증, 소화기 비뇨기의 장애에 괴로와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노인 노이로제는 항상 유소년기와 청년기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환자가 현재의 내적 갈등에 대해 자기를 지키는 「現實」 노이로제의 현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많은 노인의 불안에 해당된다.

노이로제는 환자의 인격의 모든 것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 정신병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격이 변성하고 새로운 구조를 취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정신병은 노년성 우울병이다. 그것은 특히 여성에게 일어난다.

이 병은 극히 특징적인 노화현상의 정신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리기 전의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병리적인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환자의 증상은 자아상실, 가치저하, 막힌 미래, 권태, 무력감 등이다. 그러나 노인의 전부가 그렇지는 않고 개인이 그렇게 되는데는 독자적 상황이 있다. 그 원인은 喪이라든가 別離, 주거의 변경과 같은 마음의 타격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많다. 또는 노령때문에 곤란해진 육체적인 상황에 의해 일어난다. 그 선구적 징후(徵候)는 권태, 嫌惡, 무력증, 후회, 性적 죄의식 등이다. 양로원에는 많은 우울병 환자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

노인의 정신장해로 가장 오래부터 알려진 것은 노인성 치매 이다. 이것은

특히 여성에 많고 사회적으로 이 질병은 해가족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치매증은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슴이 위축하고 그 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또 신경세포의 위축, 세포간 傷害, 老年斑 등이 보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많은 경우가 처음은 애매한 증상이고 기억이 점차로 결함을 보이고 정신적 경화증이 점점 심해진다. 그 밖의 경우는 급성 증상으로 예를 들면 흥분, 혼미상태, 망상 등 외에 환자는 의기소침의 여러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다음에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혼란이 나타난다. 환자는 착잡하고 엉뚱한 활동을 하고, 불조리하고 위험한 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가스벨브를 잠그지 않는다는가, 아직 타고 있는 성냥을 버린다는가 하루종일 준다든가 病적 飢餓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대부분은 야간 不穩한 징후를 나타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뒤척거린다.

모든 환자에게 공통된 특징은 기억의 점차적 상실이다. 대체로 역행성 기억상실이 보이고, 환자는 이미 현재를 기억에 고정할 수 없고 그의 기억은 차차 붕괴한다. 불안정한 것으로부터 안정한 것에, 미조직인 것으로부터 조직화된 것에, 최근의 것에서부터 오래된 것에라는 순서로, 기억의 고정이 없는 것과 망각때문에 환자는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상실상태가 되고, 그는 자신이 현재 있는 장소도 시간도 모르게 된다. 이 의식의 결여에 의해 그는 가끔 기억상실성 배회를 하게 된다.

게다가 그에 있어서는 체험된 시간의 변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과거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이 현재에 살지만, 이 현재를 그는 비시간적 일반성에 있어서 받아들인 것으로, 그에게는 어떤 것도 결코 새롭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은 어느 病院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훨씬 전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이라고 알았습니다.」라고 어떤 여성환자가 두번째로 만난 의사에게 말했다. 환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를 모델로 해서 현재를 금방 만들려는 것이다. 다른 여성환자는 양로원의 병실에 진찰하러 온 의사를 맞이하며 사교적인 말투로 「유감이네요.

만약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식사를 준비했을텐데。」라고 마치 식사에 초대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말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이 현재에 대해 완전히 현실성이 결여된 역사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마치 기억의 공허에 직면하여 시간의 계속을 확립할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기억상실은 언어에도 미친다. 그것은 우선 고유명사를 잊어버리고 다음으로 추상명사를, 이어서 구체명사를 잃어버린다. 이것에 의해 일상적인 행동이 저해된다. 주의력은 감퇴하고 지각은 둔해지고 그 결과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된다. 판단력이 결여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 외부 일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을 낼 때도 있다.

성격장해가 있고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한다. 그리고 충동을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가지의 욕망이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그것들을 바로 나타내고 그 현실을 아무런 형태로 시도한다. 病狀의 진행은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최후는 완전한 치매상태가 되고 전신쇠약을 일으켜 죽는다.

이 중에서도 노화의 중대한 생리현상인 노인성 치매, 노망 등은 모두 자각을 잃어버린 병자이다. 이와 같이 자아의식이나 감정을 잃어버린 인간의 늠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일본의 현대작품에는 이러한 늠름을 다룬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늠름은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칠 수 있는가라는 인생과정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고 병약한 노인은 이처럼 老醜를 드러내어 사는 것보다는 죽음의 자유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후 과정에 들어가면 죽음을 선택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죽음의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늠름의 형태도 선택할 수는 없다. 노인의 현실에서는 인생의 새로운 선택도, 자유도 없다. 더구나 자아의식 즉, 자각을 잃은 노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인 자유도 권리도 혼도 잃어버린 인간의 빈 껍질이다. 그러나 이 현실의 모습이 건강하고 희망에 차있는 청년의 현실과는 종이한장 차이이다. 우리들은 작품을 통해서 표출된 자각이 없는 노인의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할 필요성을

알고 살펴보기로 한다.

『くずかごの唄(휴지통의 노래)』(奥井登美子 III. 筑間書林 1986)는 부친의 늙음을 묘사한 것인데, 아버지는 75세를 지나서부터 78세경에까지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밤인사 대신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좋아. 자면서 조용히 죽는다면 아마 편안해서 좋을 것이라 생각하면 왠지 그렇게 되는 기분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딸에게는 그러한 부친이 죽음을 각오하고 달관한 것처럼 보인다. 어릴 때에 기억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동네 야구와 福澤輪吉(후쿠자와유키지)을 아주 좋아하고, 관료와 隣組(반상회)와 制服(유니폼)을 아주 싫어하는 철저한 리버럴리스트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理想的인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79세를 피크로 이 인생의 달관은 어이없이 무너지고, 그때까지의 아버지 라면 도저히 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차례차례 해버린다.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일관했던 아버지의 壯年期와는 대조적인 앞국은 불쌍한 늙음의 엔딩(종말)이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늙음은 未體驗의 것이고 자신의 「늙음」을 「想像」하여 보는 수밖에 없지만, 여러 작품 속에 이러한 예기치 않은 多面적인 늙음, 노인을 묘사한 작품은 많다. 우리들은 이런 작품들로부터 늙음이라는 수수께끼같은 멧세지를 파악하고, 準備性있는 늙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아버지의 늙음의 묘사가 아닌 늙어 가는 어머니의 과거에 조명을 맞춘 작품 「わが母の記(우리어머니의 기록)」井上靖, 講談社(1975)를 보면, 이 작품은 井上靖이 80세부터 89세에 이르기까지의 모친의 노망과정을 臨床적으로 묘사하고, 신체적으로는 기억에 대한 시간계열의 해체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어머니의 기억의 해체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같은 자리를 몇번이고 회전하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기억은 오래된 것부터 지워져 가는 것같지만, 노년의 기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 이 곳에서 일어난 행동과 기억이 먼저 지워지는 것이다. 어머니는 지우개로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행로를 가장자리부터

지위가는 것처럼 지웠는 지도 모르겠다. 물론 어머니 자신이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우개를 쥐고 있는 것은 늙음이다. 늙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늙음이 어머니의 평생 걸어온 행로를 차례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지워 가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환각의 나타남에 의해(86세의 어머니가), 23세의 어머니가 되어 당연히 곁에서 같이 잠자고 있어야 할 간난아기(孀)가 없어졌다고 달빛 아래를 고향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헤멘다. 거기에 62세의 작자가 있었지만, 늙은 어머니는 60년의 세월을 상실하고 明治 40년과 昭和 44년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각의 往還이 있다. 그러나 인간학적으로 노인의 과거라는 것은 거기에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사는 것,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간을 사는 큰 의미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에게는 과거를 이야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작품은 가르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89세의 생애를 마쳤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사람의 愛別離苦 이외에는 관심이 끌리지 않던 한 시기가 있었지만, 드디어 자기 인생의 긴 행로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워가고 마침내 아들마저 지워버린다. 모친은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아들을 향해 「조금 전까지 여기서 원고를 쓰고 있던 사람은 죽었군요。」라고 말했다. 나 이외의 사람일리는 없는데 「언제 죽었지」「죽은 지 3일 됩니다. 아마 오늘이 3일째죠」 저자는 이때 「문득 어머니는 지금 상황감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위대한 것을 시작했네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만의 세계에 살기 시작하셨군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라고.

그녀는 장수했지만, 평온한 죽음 전에는 주위의 친했던 사람들도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자신만의 세계가 재편성된 속에서 조용히 잠든 것이다.

이 작품은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本書의 해설에서 中村光夫는 「我が母の記」 3부작은 모두 작자의 私小説이고, 肉親을 제재로 하고, 이것은 3부작을 통해서 같은 작자의 어머니이지만, 실제의 노파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母” 또는 “老”의 상징으로써 등장한다. 상징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一箇의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자의 모친이라는 한 개인의 늙은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늙음 그 자체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늙음은 예기치 않은 개인의 늙음이며 자신의 늙음이기도 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작품이다.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노인병, 즉 자각증상 없이 의식을 빼앗아가는 노인성 치매, 기억상실, 노망, 망령 등이 닥쳐온다는 내용의 작품 중의 하나이다.

「늙음」은 「뜻밖의 未知의 正體」이므로 언제, 누구에게 「폐」를 끼칠 지도 모르고, 반대로 언제 누구에 의해 폐를 입을 지도 모른다. 폐를 끼치고 폐를 입은 이러한 비극은 현실에 당면한 문제로 이 두가지를 해결하는 커다란 힘은 社會福祉, 老人醫療의 문제이며 이것이 노인문제의 현주제이다.

치매의 시아버지를 둔 며느리와 그 가족의 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 有 吉佐和子の 『恍惚の人(망령난 사람)』(新潮社 1972)이 있다. 이 소설은 노인치매중에 걸려있는 茂造와, 그의 간호와 여생을 책임져야 하는 며느리 昭子の 나날에 終始하고 있다. 작자는 인간의 최저조건인 知覺을 잃어버린 노인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세가지 늙음에 관한 테마를 던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노망의 현실.

둘째는 핵가족과 노인문제.

세째는 노인의 상태에 관계없이 인간은 생명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尊嚴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윤리.

작품은 별체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된다. 시어머니가 죽던 날 昭子が 발견한 것은, 처의 죽음은 뒷전에 두고 부엌의 냄비에서 조림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 茂造(84세)의 모습이였다. 이 소설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茂造는 치매증에서 환각, 배회의 과정을 더듬고, 「人格缺損」으로 빠져든다. 자신의 배설물의 장소도, 처리도 할 수 없는 인간 행동을 드러내어 보이는 늙음의 비참한 현실에, 읽는 사람의 마음을 전율하게 한다. 늙음을 먼 세계의 것으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늙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 점에서 커다란 反影을 읽은 작품이다.

평온한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망한 노인의 들연한 출현이 던지는

과문은 누구에게라도 충격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中堅의 안정된 회사의 50대의 장남인 信利(노부토시)에게는 치매가 된 아버지 茂造가 결국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것을 직시하는 것은 두렵다. 단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늙은 모습이 바람직한가를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치매노인이 된 아버지의 현실을 보고 애처로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벌처럼 일에 전념하여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남성 信利의 가정에 있어서의 태도도 이 작품에서는 문제가 된다.

한편, 昭子は 맞벌이였던 것과 茂造가 매우 까다로왔던 것을 이유로 核分裂을 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인간의 생활이었던가 어떤가 昭子は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떠맡고 나서의 생활의 밸런스는 어떻게 할까. 昭子の 심적 갈등은 늘 우리들의 현실의 가정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가 불충분한 사회에서, 가족 안에 노망한 노인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희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의 보살핌을 포함하며 번잡한 가정 문제를一心으로 떠맡고 있는 여성과 그것에 눈을 감고 있는 남성에 대한 심한 비판 속에서 昭子は 정력이 극한에 이르고 절망에 잠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茂造를 자신의 힘으로 살게할 수 있는 한 살게 해야지 라고 결심한다. 그것은 昭子 자신과의 싸움이며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주부의 시련이기도 했다. 茂造는 드디어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손자가 사온 간난아기의 장난감 소리를 희미하게 느끼는 어린애처럼 되어버렸다. 내일 입원을 앞둔 밤, 가족이 지켜보는 속에서 생애를 마친다. 자각이 없는 치매노인을 내가 떠맡아야 할 지 떠맡기게 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엑시던트이다.

이 작품에서는 昭子가 고민했던 현실적인 문제인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던져지고 있는데 後章에 말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노인 문제가 그다지 거론되지 않을 무렵 노망한 주인공을 묘사하여 화제가 된 작품에 丹羽文雄의 『いやがらせの年齢』(「改造」1947.2)이 있다. 敗戰後 얼마되지 않은 昭和 22년 피난처의 좁은 결방살이 생활을 견디고, 배급제도 하에서 고생스러운 食糧難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이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인이 노망한 데다가 위장 만은 튼튼하여 하루에 여섯끼를

먹었어도 그 노망한 노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꼭 복도로 기어나와서 「배가고파. 밥을 먹게 해 줘.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라고 애처롭게 말한다는 86세의 「우메할머니」 이야기이다. 누가 그녀에게 사람답게 늬도록 해주고 싶다 따위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기껏 생활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시대에 사람다운 늬움 따위는 생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고, 老醜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에 저자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 우메할머니는 손녀들의 가정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아무도 흥미를 가지지 않고 동정을 받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래도 죽을 수 없는 우메 할머니」의 수치많은 현실이었다. 동시에 노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작자는 또 「자신들 만든 이러한 죽지 못하고 창피를 여러사람에게 보이는 노인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기고, 아직 나는 젊다고 자신에게 타이르고, 젊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도 보여준 작품이다.

여기에는 노인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람다운」이라는 경박한 휴머니즘은 불필요하며, 노망이 나서 다른사람들이 싫어하고 창피를 드러내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인간의 삶의 세계가 있고 타인은 추측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가 묘사되어 있다. 특히 사치도, 感傷도, 지성의 배일도 벗겨낸 뒤의 老醜의 리얼리티가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밝은 여운이 보이는 것은 불교적인 諦感이 基調가 되어 있기 때문일까.

인간의 不意의 老醜는 결코 타인의 것이 아니다. 자각없는 늬움만큼 사회에 있어서 성가시고 불쌍한 것은 없다. 숙명적인 老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사회와 약한 치매인간의 균열을 고쳐가는 것은 젊은 세대이다. 멀지 않아 다가오는 자신의 세대를 위해서. 한국의 소설에 있어서 이런 종류(노인성 치매 등)의 작품을 필자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 IV. “늬움”의 사랑과 性

세계의 위대한 예술가나 작가의 노령시대의 기록은 여러가지가 남겨져 있지만, 우선, 도덕가가 주장하는 淨化는 무엇보다도 性的 욕망(慾望)의

消滅이라는 점에 있다. 그들은 나이가 든 인간이 성욕(性欲)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의해 마음의 明澄을 획득하는 것에 祝儀를 나타낸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번즈는 엘레지 속에서 성욕이 사라진 이상적인 노부부를 묘사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손을 잡고 인생의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예전에는 감미로운 시간들을 맛보았다. 지금의 그들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손을 마주잡고 여행의 종말로 유도하는 길을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정경이 중년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미지이며, 조부모에의 존경에서 이상적인 노부부의 모습으로 믿어져 온 것이다.

거기에 반해 나이가 든 사람들의 性的 交渉이나 性愛는 세상의 비난과 嫌惡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도 욕망을 가진다. 그 이유는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향수(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청년기 혹은 장년기에 體驗한 好色적 우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우주의 탈색하여 가는 색채를 욕망에 의해 다시 살리고 싶어 한다. 다음의 작품은 이와 같은 노인의 性과 욕망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고, 시들지 않는 노인의 욕망을 보여준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 「變容」은 작자 伊藤整가 죽기 1년 전의 작품이며, 昭和 42년부터-43년에 걸쳐 岩波書店의 「世界」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고, 작자의 연령은 63세였다.

이 소설은 龍田(타키타)라는 이제 곧 60세가 다 된 일본화가가 주인공으로 龍田인 나 의 시점에서 이야기된 사소설적인 수법으로 쓰여져 있다. 여기에 龍田의 性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고백되어져 있다.

노령이 가까와지고 性력이 쇠퇴해져 갈 때 조금밖에 남지 않은 性력을 正과 邪로 구별하여, 그것을 억압하는 본능적인 嫌惡이 내 속에 살고 있다. 노령의 好色이야말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생명의 바람이고, 또 생명의 찬가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추악하게 보이는 노령의 好色이 신성한 생명의 빛으로 내앞에 빛나고,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녀가 해폰 것도 아니고, 내가 약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숭고한 생명의 접촉인 것이다.

龍田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戰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龍田의 생각은 性은 그것 자체가 선과 악의 경계를 이루는 일선이라고 나는 느끼지 않는다. 남녀가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였을 때 두사람은 性을 계기로 하여 결합하는 것이다. 性은 인간 서로가 접근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술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늬움의 소극적인 이면에 빛을 부여하는 것같이 그 행동을 긍정한다.

또 예술가인 그에게 있어서, “늬움”은 사회의 구속이나 律義, 도덕, 수치 등에서는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면 안되었다. 왜일까, 그것은 나는 생명이 감각으로서만 지각된 것을 알고 있다. 감각적인 것의 추구를 직업으로 하여 60에 가까워진 남성의 나에게 감각이 구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하고 싶다는 격한 내면의 바람이 있다. 한달마다 둔해지고, 또 마멸(磨滅)해 가는 것이 느껴지는 나에게 그 감각의 기쁨을 거부하고 구속하는 이 세상의 약속된 모든 것을 나는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와, 감각 우선으로 산다. 라는 삶의 방식, 제한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性이고, 그것은 붉게 빛나는 석양과 같이 허무하고 아름다운, 남겨진 생명의 자유로운 시간과 같은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龍田의 선배 화가인 岩井도, 또 「龍田군, 70이 되어 보아라. 옛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욕망, 邪念으로 하여 목살했던 것이 모두 생명의 방울이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70이 된 것 같다. 생명은 흘러 없어진 것이다. 살고, 느끼고, 만지는, 인간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고 이것은 龍田의 노령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이었다. 실로 긴 시간,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나는 세상과의 약속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자신을 죽이고 살아왔다. 라고 고백하는 龍田의 노인으로서의 삶은 매우 자유롭고, 생명의 활력을 情慾으로 구하고 살아가는 시들지 않은 老人像인 것이다.

또 노인의 性에 관한 가장 강렬한 증언의 하나로 탐미주의작가인 谷崎潤一郎 (타니자키준이찌로오)의 소설을 들 수가 있다. 「性の 욕망은 죽음이 그것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끊을 수 없다.」라는 谷崎의 허구로써 노인의 性의 집념을

주제로 한 작품은 「鍵(열쇠)」와 「癡癲老人日記(바보노인일기)」이다. 「癡癲老人日記」는 昭和 36년에서 37년 5월까지 「中央公論」에 발표되었고, 작자의 연령은 76세이지만 소설의 주인공인 卯木(우노끼)노인은 77세이다.

이 소설은 부유한 卯木노인과 며느리인 타즈코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미녀에게 빠진 가벼운 정신병자인 卯木노인의 모습이 극히 객관적으로 유모어를 섞어서 묘사되고 있다. 卯木노인은 요염한 동작으로 노인을 유혹하는 근대적 惡女인 며느리의 육체에 접촉하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삼백만엔의 켄츠아이(보석)를 사주기도 한다. 게다가 타즈코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수영복 입을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정원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묘에 타즈코의 발자국을 佛足石으로 본뜨려고 계획하기도 하는, 끊임없는 공상과 실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谷崎潤一郎의 만년은 심한 고혈압증으로 實存의 위기를 맞이하여, 노년에 이르는 10년간 작품의 주제는 삶과 性의 집착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谷崎는 차츰 생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때문에 오히려 생존의 연소제로써 性을 생각하였다. 생명과 性이 유착한 세계의 저편에는 항상 죽음이 석양과 같이 발갛게 이편을 비춘다. 그 한편 性은 존재의 내부에서 쇠퇴해가는 생명을 따뜻하게 하고 활기를 북돋워주는 등불과 같이, 산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활성제였다. 즉, 노년이라는 나날에 완만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극한 상황 속에서 性은 정말로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은 통절하게 알 수가 있다.

다음은 늙음의 슬픈 자각과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한 川端康成(카와바타야스나리)의 「山の音」를 들 수 있다.

「山の音」는 昭和 24년부터 29년까지 계속해서 쓴 16개의 독립된 단편이고 連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山の音」의 주인공 尾形信吾(오가따신고)는 62세이고,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川端康成은 50세로, 주인공의 연령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이지만 大戰을 경험한 작가가 敗戰을 경계로 「敗戰後의 나는 일본 古來의

슬픔 속에 돌아갈 뿐이다. 나는 戰後의 세상, 풍속 따위를 믿지 않는다. 현실 따위도 믿지 않는다。」라고 「哀愁」 속에서 기술하고 現世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심경이 있고 주인공 信吾의 늬움에 대한 感懷에서도 작가 자신의 初老의 투영을 볼 수 있다. 또, 「川端康成研究史覺書」에 의하면 昭和 20년 11월호의 「新潮」에 게재된 「島木健作 追悼」에서, 川端康成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이미 끝났다고 느끼고, 이제부터는 오래된 山河에, 즉 자연 속에 혼자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가련한 일본의 아름다움 이외에 관한 것은 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하고 다음해 22년 말에는 旧友橫光利一の 죽음을 맞이하고 23년 2월호 「人間」에서 그를 애도한 추도의 글로 「橫光君, 나는 일본의 山河를 魂으로 해서 너의 뒤를 살아간다...」 라고 일본 古來에의 회귀의 심경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山の音」의 信吾가 고향에 돌아가 자연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자연에의 회귀의 심경과 겹치는 부분이다.

「山の音」는 川端康成의 창작 배경과, 방법론에 의해 날카로운 감각으로 대상을 응시하고 현실묘사와 몽환의 세계를 조화시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그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山の音」의 구성인물은 62세의 주인공, 信吾와 그 가족, 처의 保子, 아들의 修一, 며느리의 菊子로, 鎌倉(카마쿠라)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소설은 8월 초순의 밤, 信吾가 산울림을 듣고, 그 소리에 死期를 告知받은 것처럼,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信吾의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죽음과 망각과 괴이한 性夢이다. 이루지 못했던 예전의 사랑을, 며느리 菊子에 의해 채우는 마음은, 信吾의 삶에 남겨진 등불이며, 가정의 창이다.

어느 날, 信吾는 향수에 젖어서 菊子和 동반하여 가족 모두 고향에 단풍구경을 가자고 말한다. 시골의 단풍에는 信吾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추억이 있다. 라고 하는 줄거리이다. 信吾는 항상, 이해력 있는 가정적인 가장이지만, 어딘가 고독한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노년인 信吾의 완만한 현실에 안개와 같이 끊임없이 물려오는

늡음의 애수가 주제로 되어 있다. 信棼의 늡음의 비애의 근원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외면적인 육체적인 늡음의 자각이다. 또 하나는 그의 내면을 늡을 때까지 지배해 온 과거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집착이다. 信棼의 주위를 흐르는 시간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완만하게, 이 내면의 슬픔이 늡음과 죽음을 연출하고 信棼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우선, 信棼의 육체적인 쇠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금 눈썹을 찡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그의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다. 가족 세사람이 信棼의 기억을 보충하고 있었다. (山의音)

어떨 때는 40년간 매었던 벅타이를 뿔 수 없다. 信棼는 문득 自己喪失인가, 脫落이 왔는가 하고 웬지 두려웠다. (秋의魚)와 같이 信棼는 늡음의 불안을 떼어 놓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회적 고독감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활력의 쇠퇴를 앞과 동시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인생을 점차 젊은 사람에게 뱃기고 자기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처럼 느낀다. 또 자신이 키워 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은 점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간다 라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세째는 인생에 대한 피로감이다.

머리를 몸에서 떼어내어, 대학병원같은 곳에 세탁을 의뢰하고, 그동안 몸체만 푹 자고 싶다. (秋의羽)라고 하는 기분나쁜 상상을 한다. 그를 거의 생리적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인생의 무거운 피로감이 信棼를 엄습한다. 내면적으로 잃어가는 인생의 슬픔의 복합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잃어가는 인생”(山의音), “자기상실인가”(秋의魚), 信棼의 62세의 인생의 내면에 깃들어 있던 슬픔이고,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悔恨인 것이다. 이 작품에 감춰진 늡음과 죽음의 불안과, 그 幻影 속에서 信棼의 마음에 불타고 있던 사랑의 불꽃이 미묘한 비애를 보여주는 노인문학이다.

## V. 社會와 老人

제5장에 있어서는 노인위기의 전설 등을 참고로 “사회와 노인”을 주제를 옮겨 보고자 한다.

未開사회에 있어서는 마을이 가난하여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70세가 되면 노인은 산에 버려진다는 전설이 한국의 고려장 전설, 일본의 우바스테 전설에도 알려져 있다. 未開사회와 공동체 안의 종교와 노인의 역할은 풍습과의 관계로 부터 나라에 의하여 여러가지 다른 전설을 남기고 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서는 권위자로서 받아들여지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은 냉대될 뿐만이 아니라 遺棄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일본의 근대소설에 老人遺棄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작품이 있다. 深澤七郎(후카자와시치로오)의 「樽山節(나라야마부시)考」이다. 이 작품은 昭和 31년(1956) 11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단편이며, 노인위기의 전설을 제재로 한 것으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中村光夫(나카무라미즈오)는 단행본 「樽山節考」의 카바에 「원인 모를 매력」이라는 말로 평가한 것은 당시의 문학이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독특한 작품임을 의미한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가난한 이 마을에서 노인은 70세가 되면 山(나라야마)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머지 않아 칠십을 맞이하는 오린할머니는 산에 가는 날의 의식에 사용하는 술과 산에서 가는 새뚫자리까지 만들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죽고 장남의 홀아비생활이 걱정거리였지만, 그며느리도 이웃마을에서 왔으므로 이제 안심이다. 겨울이 오자 할머니는 주저하고 있는 아들인 타쯔헤이에게 졸라서 정월이 오기 전에 나라야마에 갈테니까 모두를 모아서 제사를 지내자고 말한다. 나라야마는 「일곱개의 골짜기와 세계의 못을 넘어서 가는 먼 곳에 있는 산」이다. 거기에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라야마에 갈 때는 눈이 내리면 가장 좋다고

한다. 그 다음날 새벽 타쯔해이는 노모를 등에 업고 어두운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주위에는 시체와 백골이 산재하고, 까마귀가 새까맣게 물려들어 있었다. 아들이 노모를 山上에 두고 혼자 산을 내려오는 도중, 흰 것이 눈에 보였다. 눈이었다. 도중에 돌아가는것은 금해져 있었지만, 타쯔해이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어서 돌아갔다.

「어머니, 눈이 왔어요. 정말 운이 좋군요.」

노모는 「돌아가, 돌아가.」 라는 손짓을 하였다. 타쯔해이는 脫兎처럼 산을 내려왔다. 겨우 집에 들어가자 집에는 손자인 케사키치가 노모가 놓고 간 솜옷을 입고 역시 그녀가 준비했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노인위기의 전설은 「大和物語」 「今昔物語」 외에 각지의 민화에도 잘 알려져 있고, 보통은 노파가 본의 아니게 버려지는 줄거리지만, 이 「樽山節考」의 주인공 오린할머니는 스스로 나라야마에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70세 정월 전인 69세에 초 초해하는 아들을 졸라서 나라야마로 출발한다. 전통에 따라서 신을 믿고 있는 이 오린할머니의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소설은 마타안할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타안은 70세를 넘었지만 산에 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그러나 그를 빨리 보내고 싶어했다. 아들은 나라야마의 제사날에 아버지를 세끼줄로 묶었다. 아버지는 세끼줄을 이로 물어뜯고 이 행위로 아들과 공동체와 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도망쳤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잡고 그 다음날 타쯔해이가 산을 내려왔을 때 바위 밑에 머리에서 발까지 묶인 노인을 발견한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오래된 가마니에 쌓인 물건처럼 골짜기에 던져버리자, 까마귀들이 골짜기로 물려간다. 이것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다. 아들은 범죄인처럼 행동했으나 아버지는 신들이 원하는 습관에서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린은 마타안처럼 산에 가야 하는 공포나 슬픔을 克服한 사람이였다.

불교에서는 “늡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에 “妄執”을 끊은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凡人이 삶에 대한 妄執을 끊는 것은 상당히 실천하기 어렵다. 이것에 의하면 늡음, 죽음의 근심, 비애, 고통, 공포는 인간에게 부여된 生死의 인과로, 생명있는 곳에 늡음이 있고, 반드시 죽음은 온다.

이 삶의 妄執을 끊음으로, 解脫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오린할머니는 凡人의 끊을 수 없는 妄執, 즉 해매는 일이 없었다.

이 작품에는 근대적 자아의식과는 다른 토착의 인간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樽山節考」에는 서정적이라는 말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感傷에 우선한다 라는 가난한 촌락사회의 습관의 극점에 假構된 소설이다. 즉 가장 먼저 절대적인 생활의 테두리가 있고 그것이 회생을 강요하는 조건속에서 회생이 축복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도덕이 되고 있다. 그 도덕에 위반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부여된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애매한 도덕도, 신앙도, 습관도 없는 것이다. 생활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조이다. 그 테두리에 박혀있는 전통적이고, 모럴리스트인 오린의 삶의 방식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정신풍토의 一端으로 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가난한 노인의 죽음을 目前으로 하는 단편 두개를 통하여 사회와 노인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그 하나가 「老殘」이다. 이 작품은 昭和 27년(1952년) 3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宮地嘉六(미야지 카로크)의 私小説적인 단편이다. 「종전과 함께 동경의 하늘이 갑자기 평온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누구도 안심했을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단편은 종전 후 3년째가 되고 전후의 비참한 생활, 어둡고 황량한 도시 속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65세의 노인의 사생활을 묘사해 간다. 20년 전에 처와 이별한 채, 고독한 홀아비생활이며 지금은 길가에 도장쟁이가 되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겨울이 와서, 전쟁후 3년째의 연말이 가까와지는데 나는 가난한 탓에 지금은 회고하는 것도 싫다. 나의 회고는 자기혐오와 회한과 사회에 대한 증오와 운명의 장난에 분노하는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선량한 인간이다. 밀바닥생활 속에서 단지 술을 사랑하고, 한잔의 소주를 얻기 위해 국민주점에서 술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나 그는 밀바닥생활 속에서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연말이 다가오는 어느 날, 우연하게 두병의 위스키가 들어오게 되었다. 「나는 그 위스키를

책상 대신의 사과상자에 놓고」 신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의 합장을 했다. 한사람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기쁨이 아닐까. 그리고 대목날 밤, 그 위스키를 마신다. 「취함과 함께 여러가지 추억과 환상이 머리속에서 전개」 된다. 사과상자 위의 촛불이 상하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자, 멀지 않아 올 자신의 죽음이 연상된다. 어차피 온 결정적인 것이라면 「죽음이여, 언제라도 와라.」 라고 말하고 자기가 자신의 모의 장례식을 한다. 「너는 천재는 아니었지만, 65세의 긴 인생을 잘 살았다. -- 略 -- 너의 인생은 정말 혜택받지 못한 일생이었지만, 지금 두자식은 성인이 되었다. 너의 사명은 다했다고 말해야 하는가. 이로서 고이 잠들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獨酌으로 마시면서 날을 새웠지만, 실은 「회한의 생애에 통곡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잊으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고독한 주인공의 늙어가는 신세 한탄이다.

다음 작품은 1930년대 이태준에 의해서 쓰여진 복덕방이다.

젊은 시절을 보낸 세사람의 노인이 남은 여생을 복덕방에 머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주인공 안초시는 부단히 재물을 모으려 노력했으나 운이 없어서인지 나이가 든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일푼이다. 딸이 하나 있지만, 아버지를 돌볼 생각보다는 자신의 인생 외에는 관심이 없다. 때문에 적삼에 부러진 안경다리를 고칠 여유도 없는 안초시에게도 마지막 하나의 희망은 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이 생기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낫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볼 수 있다.” 때문에 서참위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어자건만 한번도 서참위의 생활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다.

복덕방의 주인인 서참위는 젊은 시절의 무관이었으나 합병 후, 복덕방을 시작하여 땅도 있고 집을 세우기까지 했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고 큰 건축회사가 생겨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줄었지만, 생활은 넉넉한 편이다. 하루는 가마니나 신문잡지, 유리병이나 간장통을 자기 또래의 한 노인이 예전의 학식과 재기가 있는데다 호령소리가 좋아 상판에게 늘 칭찬을 받던

청년 무관이었음을 기억해 내고는 씩씩해한다.

서참위, 안초시와 함께 이 복덕방에 놀러오는 늬은이인 박회완 영감이 있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代書業을 해 볼까 하는 마음에 속수 국어독본을 늘 끼고 다니지만, 세월만 흐르고 대서업 허가는 나오지 않을 듯하다.

예순이 가까운 안초시는 늬어가는 것이 원통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더 늬기 전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던 중 박회완 영감에게서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변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생각 할수록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진다. 평소 심심풀이로 운을 점쳐보던 화투패도 그날따라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푹 떨어진다. 하나의 복선이다. 딸의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어 돈을 마련한다. 하지만 안초시는 돈을 만져볼 수 없다. 딸이 애인에게 돈관리를 맡긴 것이다.

그러고 난 후, 일년이 지났다.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다. 측향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에서인지 중지되는 바람에 그 모씨가 땅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박회완 영감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추석이 가까운 그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맑았다. 안초시의 적삼은 여전히 때가 묻어있다. 안초시의 죽음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서참위이다. 죽기 전날, 서참위는 요즘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시를 위로해 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사주었었다. 안초시의 죽음에 딸인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였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지막 안초시의 장례를 생각한 서참위는 안초시가 죽기 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을 생각해내고, 딸에게 아버지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비밀리에 불이기로 하고 그 대신 보험금으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도록 한다. 영결식날 서참위는 분향을 하며 죽은 안초시를 향해 독백한다.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지. 자네 살았으면 이만한 호사를 해 보겠나? 이제는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영결식에 모인 사람들이 안초시의 죽음을 애도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서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분향을 하고는 곧 그곳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술집으로 향했다.

「老殘」 「복덕방」은 몇가지의 공통성을 볼 수가 있다. 우선 두편 다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다. 사회적 환경, 즉 평범한 가정도 가질 수 없는 노인의 삶의 비애를 구하는 현실적 대책이 없는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이 단편들이 쓰여지고 벌써 50년 이상이 되는 현재는 이처럼 노인을 구하는 사회복지 문제도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또 한편의 가난한 노모가 주인공인 단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李光洙)의 「할멈」이다.

할멈은 어야, 어야 하는 상두군의 상여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구경하러 나간다. 경상도가 고향인 이 할멈은 시골사람이라 조금 어리석지만, 일 잘하고 믿음직한 왠지 정이 드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순 다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한다.

서른 다섯에 남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하여 열살된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 하였지만 그 남자도 죽고 그나마 할멈에게 조그만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일하기 싫어하는 아들이 양식을 비롯하여 집마저도 팔아버린 듯하다. 아들의 돌봄을 받기는 커녕 생활의 방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야 했던 이 할멈의 마음은 그래도 늘 그의 아들과 딸과 칠십여년간 고생은 하였지만 정든 고향산천으로 가득차있다. 그래서인지 주인집의 만류를 뿌리치고 추석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다.

오늘도 상여나가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구경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사람도 얼마 안되고 상제도 없는 불쌍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비록 혼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 죽음만은 자식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지막 바람을 가져본다.

이광수의 「할멈」은 「老殘」의 나와, 복덕방 의 안초시처럼 고독한 약한 노인으로써 묘사되지 않은 그녀는 불효자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죽음에 대한 각오를 지니고 있다. 이 희망은 노모의 삶의 활

력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노인과는 다르다. 안초시는 「老殘」의 나도 사회에서 소외된 듯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고, 노인의 비애를 현대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로서 던져지고 있는 작품이다. 사회와 노인의 문제는 지금의 사회복지 대책에 의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까.

## VI. 結 論

이 논문은 한일문학에서의 노인문학을 몇가지 살펴보고, 그 중에 취급되고 있는 노인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한마디로 늙음이라는 문제가 어떤 다양성을 가진 現象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늙음은 축복되지 않은 비애의 삶인 것을 周知하는 것이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임을 재고시킬 수 있다.

우선 몇가지 작품에서 알 수 있는 늙음의 실태를 고찰하고, 준비하고 공동의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늙음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의 자료 조사는 문헌과 참고자료에 의해 다소는 언급하고 싶지만, 실현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 거론된 늙음의 현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우선 늙음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의하여 규제되는 개개의 차이를 가지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現象인 것이다.

두번째는 생물학적 늙음을 자각한 인간의 歎老를 한국의 時調와 일본의 古今和歌集에서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인간의 늙음은 슬프고 한탄스러운 숙명적인 것을 본다.

세번째는 돌연 다가오는 노인의 정신장애를 다룬 작품 「くずかごの唄」 『れが母の記』 『恍惚の人』 『いやがらせの年齢』를 통하여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 치매때문에, 노망때문에, 인격상실의 노인의 모습과 그것을 간호하는 가족의 회생을 안다. 사회복지문제의 가장 심각한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네번째는 늙음의 사랑과 性의 문제를 다룬 『變容』 『ふうてん老人日記』 『山の音』에 의해 노인의 性은 생명의 활력이고, 사랑의 집념과 회상은 노인삶의

원천인 것을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이 작품들에서 알 수 있다.

다섯번째로는 가난한 삶을 단념하려고 하는 노인을 다룬 「老殘」 「복덕방」 「할멈」 에서 현실에서 혜택받지 못한 많은 노인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

### 參 考 文 獻

- 川端康成 「山の音」 新潮文庫 1989.  
谷崎潤一郎 「鍵」 「瘋癲老人日記」 新潮 文庫 1990.  
伊藤整 「變容」 岩波書店 1968.  
有吉佐和子 「恍惚の人」 新潮文庫 1989.  
深沢七郎 「檀山節老」 新潮社 1981.  
丹羽文雄 「厭がらせの年齢」 新潮文庫 1990.  
永井龍男 「永井龍男全集」(第一卷) 「朝霧」 講談社 1981.  
井上靖 「井上靖」 現代の文學 12, 講談社.  
官地嘉六 「老殘」 「中央公論」 1952. 3月号.  
紅野敏郎 「論考谷崎潤一郎」 櫻楓社 1980.  
泰恒平 「谷崎潤一郎」 筑摩叢書 1989.  
千葉俊二編 「日本文學研究 資料新集 18, 谷崎潤一郎」 筑摩叢書.  
羽鳥徹哉編, 日本文學研究資料新集 27, 「川端康成」 有精堂, 1990.  
鶴田欣也, 「川端康成の芸術」 國文學研究叢書, 明治書院, 1981.  
野口武彦, 「谷崎潤一論」 中央公論社, 1973.  
伊藤整 「伊藤整全集」 10, 新潮社, 1972.  
永井龍男 「永井龍男」 16, 新潮現代文學 1, 弥生書房, 1981.  
シモーズドボーヴォワール, 「古い」 人文書院, 1972(朝吹三吉訳)  
加藤周一, M, ライシエ著, 「日本人の死生觀」(上・下), 岩波新書, 1977.  
相良亨 「日本人の死生觀」 ぺりかん社, 1984.  
\_\_\_\_\_, 「日本文芸鑑賞事典」 1~20卷, ぎょうせい, 1987.  
\_\_\_\_\_, 日本古典文學全集 「古今和歌集」 小学館, 1981.  
沈載完 「定本時調大全」 一潮閣, 1984.  
金起東·外 「時調文學」 瑞音出版社 1983.  
李泰俊 「福徳房」

- 徐元變 「時調文學研究」 螢雪出版社 1981.  
崔東元 「古時調論」 三英社 1980.  
李光洙 「李光洙選集」  
大村益夫他 「朝鮮短篇小說選」 (上) (下) 岩波文庫, 1988.  
金台俊 「朝鮮小說史」 東洋文庫 270 平凡史 1975.  
尹學準 「朝鮮의 詩 ところ」 講談社學術文庫, 1992.